

함즐함울

PRESBYTERIAN CHURCH OF THE LORD WEEKLY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롬 12:15)
2005년 교회표어 : 꿈을 꾸고 이상을 보라!

대한 예수교 장로회 주님의교회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50-4 (정신여중고 내) 02-416-5181 www.pcltv.org

기사제보 : 함즐함을 관련사항은 이창현 목사에게 문의바랍니다.

mobile: 011-466-4736 email: chhylee@korea.com

군부대에 울려 퍼진 복음과 찬양의 메아리 되어 살롬 찬양대 군부대 방문, 신병들 격려해



지난 주일(4/24) 오후, 우리 교회 군부대사역팀과 3부 살롬 찬양대는 경기도 연천군 전방에 위치한 제5사단 신병훈련소 내 상송교회에서 음악예배를 드렸다. 2대의 버스에 나눠 3시간 걸려 도착한 그 곳은 군대에 갓 입대한 신병들이 5주간의 고된 훈련을 겪는 곳으로, 전통

적으로 불교의 위세가 강하고,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했던 부대이기에 서울에 있는 교회들의 사역의 손길을 더욱 필요로 한다는, 사단 군종 목사로부터 특별한 부탁을 받았기에, 군부대사역팀과 살롬 찬양대는 더욱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였다. 도착 후, 잠시 동안의 무

대 점검과 연습을 마친 살롬 찬양대와 군부대사역팀은 신병들과 함께 부대 식당에서 소위 '짬밥'으로 저녁식사를 했다. 남자 대원들에게는 실로 그 옛날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여자대원에게는 아들, 남동생, 혹은 남자친구가 먹는 식사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는 의미 있는 식사 시간이었다. 저녁 7시,

한형석 안수집사의 성경봉독에 이어, 이인호 목사의 '신묘 막축하심이라'는 시편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항상 사랑하시기에 내가 제일 귀한 존재'라는 말씀은, 신병훈련을 받으며 혹 느끼기 쉬운 자기 비하나 열등감을 딛고 일어설 수 있고, 또 군생활 동안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이를 해결하는 지혜로 삼게 해주시는 귀한 선포였다.

(3면에서 계속)

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

다음 주일 9시 30분 중예배실에서 중고등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다. 자녀가 중고등부에 있는 부모들은 다음 주일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4부 전도예배, 5월 29일 첫 예배 시작돼

그 동안 6개월에 걸쳐 연구되고 준비된 전도예배가 5월 29일 오후 2시에 대예배실에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된다. 이 전도예배의 목적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친근하게 받아들일도록 문화적 도구를 사용하는 예배를 드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돕는 것이다. 이러한 전도예배를 기획하게 된 동기는 우리 주위에서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기독교에 대해 정서적으로 친근하게 여기거나, 혹은 호감을 가지고 있는 비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현실 인식과 그들에게 교회가 조금만 더 문을 열고, 그들에게 다가가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좋은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혼 구원에만 집중하는 예배, 복음전도만 전념하는 예배, 전도를 통한 예배와 함께 예배를 통한 전도를 하기 위함이다.

전도예배 사역팀에는 김경신 장로, 최재경 권사피택, 이동희 집사, 이호, 김현령, 이창현 목사와 그 외 여러 명의 예배를 준비하는 팀별 팀장과 팀원, 스태프들이 속해 있다. 이 예배에 성령의 기름부으심을 위한 성도들의 많은 기도를 요청하며, 무엇보다 성도들과 구역, 그리고 개인 차원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지는 않지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 예배로 적극적으로 초청해 주기를 기대한다.

5월15일, 제3회무지개축제 전체 4부로 계획해

제3회 무지개축제가 5월15일에 열리게 된다. 당회는 무지개축제 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최상용 장로를 임명하고 지난 3월27일 첫모임을 가지고 실무준비에 들어갔다.

시편133편 1-3절 말씀을 따라 "주님의 가족"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주일예배는 1부예배와 연합예배로 두 번 드린다.

1부예배는 7시30분에 중전대로 드린다.

연합예배는 9시30분에 드리며, 3부예배와 청년예배, 영어예배는 따로 드리지 않고 연합예배를 함께 드리게 된다. 연합예배 시간에 초등학교까지는 교회학교의 자체 예배를 드리게 되며, 중학생 이상은 연합예배를 같이 드리면 된다. 연합예배가 끝나는 10시30분부터 무지개축제 2부시간이 시작된다.

2부는 먹거리마당, 놀이마당, 축제마당과 함께 구역별 식사가 동시에 진행된다. 먹거리마당에는 15종류의 먹거리시장이 열리는데, 500-2000원 상당이면 구입할 수 있다. 놀이 및 축제마당에서는 아이들과 어른들을 위한 놀이동산 및 추억의 코너가 마련될 것이다. 3부는 오후 1시부터 시작된다. 운동장에서 진행되는데, 백색의 한마음팀과 적색의 한가족팀으로 나뉘어 전교인 운동회를 벌인다.

한마음팀에는 1,5,6교구가족, 중등부1/2, 고등부1/2, 청년부1/2 교우로 구성된다.

한가족팀은 2,3,4,7교구, 중등부1/2, 고등부1/2, 청년부1/2 교우로 구성된다.

이날 사회는 이재욱 전도사가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4부 한마음의 장은 3시30분에 다시 대예배실로 들어와 우리교회의 숨은 재능들과 끼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며, 아울러 감동의 장이 될 것이다. 무지개축제 당일에는 교정내로 차량은 들어올 수 없고, 종합운동장 주차장과 탄천주차장 등을 이용해야 한다. 단 장애교우차량은 진입이 가능하다. 무지개 축제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교회 안에 붙은 현수막과 계속 제공될 안내지와 간지를 참고하면 된다.

중보 기도 월례회

지난 21일(목)에 영아부에서 중보 기도 월례회가 있었다. 중보기도팀 35명은 정영환 목사의 기타반주에 맞추어 찬양을 하며 기도 월례회를 가졌다. 제5기 수료생들이 다 나와 가운데 원을 그리고 앉고 우리 사역자들은 그 주위에 원을 만들어 5기생들을 위하여 기도하였고 정영환 목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역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마무리 기도했다.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과 열정으로 날마다의 삶속에서 중보기도 사역자가 되며 육신의 건강과 가정의 평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중보사역을 잘 감당할수있게 해달라는 기도도 드렸다. 그리고 모인 모든 중보기도팀은 서로 5기생들을 화영하며 안수하고 아이주기도 했다.

‘요한계시록 연구’

정희성목사와 함께하는 ‘요한계시록 연구’는 매주 목요일 저녁7시30분, 초등부실에서 진행된다. 지난 28일에는 요한계시록 3장을 해석해보는,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다. 사데교회와 빌라델비아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교회를 들여다보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인 자신과 비교하며 성찰케 하는 시간이었다.

성령의 역사가 없고, 말씀의 도전이 없는 사데교회를 향해 주님은 그래도 남은 가능성에 집중하고 찾아오신다



는 약속을 하셨으므로 교회가 설립될 때 처음 들었던 복음을 다시 기억하고 회복해야 할 것과 그 첫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애써야 한다고 정희성목사는 힘주어 전하였다. 빌라델비아교회는 사회적으로 볼품이

없었지만 적은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켰으므로 그들이 평소의 고난을 잘 참아 넘기면 큰 환란을 면케해 주신다는 내용이다. 주님의 말씀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으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라오디게아교회는 겉으로는 진리를 붙드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잠자는

교회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이 교회를 향해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고 말씀하셨다. 정희성목사는 이와 같은 신앙을 지닌 맹목적인 그리스도인의 상태에서 벗어나 말씀으로 도전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통과한 연단된 믿음이 있어야 하며 삶속에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나님은 ‘내가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라!’고 말씀하신다.

주님이 오시는 것만이 신앙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으므로 우리를 병들게 하는 영적 나태와 게으름을 경계하고, 늘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깨어있기를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 목요모임

내가 드릴 수 있는 전인적인 예배

4월 28일 특별목요모임에는 문동학 담임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에 나오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구절에서 몸은 모든 것을 의미한다. 영혼, 정신, 육체, 의지를 포함한 모든 것이다. 그것에는 현재 직업, 모습, 기술과 달란트등도 들어있다. 지금 하고 있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께 거룩하고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되는 것이다. 이런 생활의 예배는 육적인, 율법적인 예배와 상반된다. 가장 거룩한 예배는 전인적인 예배다. 현재 가장 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라.

화가 두 사람을 소개한다. 프랑스 화가 Georges Rouault는 피카소와 함께 20세기 전반 대표하는 화가이다. 그의 작품은 예수님의 얼굴을 많이 담았다. 화실에는 수백 개의 예수님의 얼굴이 쌓여있었다. 누군가 왜 이렇게 붙잡혀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그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감동적으로 그려서 즉각적으로 회심하게 되는 게 일생일대의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유행이었던 그 당시 기법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려고 애썼다. 그 그림이 거룩한 제물인 것이다. 가지고 있는 은사를 사용하라.

다른 화가는 Vincent Van Gogh, 선교사가 되고 싶

었던 그는 신학을 공부하고 탄광촌에 단기선교사로 가서 지역주민들과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자신의 있는 것을 다 나눠주었다. 교회본부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다고 선교사 임명을 부적절하게 판결했고 그는 절망적인 빈털터리가 되어 인간관계를 끊었다. 그리스도를 만났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했는데 영적위기가 온 것이다. 그러나 그는 어두운 새장을 탈출하여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그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길을 선택했다. 그는 그림으로 가난하고 버려진 이들로 취급받던 사람들을 사랑으로 보여주고 싶었다. 그를 마지막으로 돌보았던 의사는 그를 보고 "당신의 그림은 사람마음의 고통을 치료해줄거야 세기가 지나고 지나서 기쁨을 가져다 줄거야 그 때문에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야"라고 했다. 고초에 대한 이런 깨달음을 노래한 Don Mclean의 Vincet는 그것을 잘 표현했다.

이 시간에는 어느 때와 다르게 두 화가의 작품을 슬라이드를 통해 보고 또 Vincent의 노래를 듣는 등 멀티 매체를 이용하여 메시지를 깊이 생각해보게 하는 시간을 가졌다. 5월 5일 어린이날 특별목요모임에는 한국 예수전도단 설립자인 오대원 목사가 말씀을 전하게 된다.

구리 서울 FC 구장을 축구클럽 독무대로



4월 24일 주일 유소년축구부는 구리 FC구장을 다녀왔다. 이곳은 인조잔디로 아이들이 경기를 하기에 너무도 좋은 곳이었다.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곳이었기에 우리 축구부의 독무대였다. 큰 운동장에서 조별로 나뉘어 게임을 했고 부상자 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아이들의 경기에 이어 교사와 학부모들도 게임을 가졌다. 이 날 김현령목사와 정희성목사가 방문해 함께 게임에 참여하여 더욱 감사했다.

또한 학부모들이 봉사로 많은 일들을 도와주고 함께 하여 더욱 즐겁고 풍성한 시간이었다. 마지막까지 땀방자로 힘을 다한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여성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재조명해



매주 화요일 10시 30분 5층 찬양연습실에서 영어영문학 교수인 이희숙 권사의 <믿음의 여인들> 강의를 열고 있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하와’, ‘드보라와 바락’ 등의 주제를 놓고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다. 지난 화

요일에는 창세기 2장, 3장을 통해 죽었어야 할 죄인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자의 어머니’로 거듭난 하와를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말씀을 읽기 전 활동으로 생각의 폭풍 일으키기, 읽기 중 활동으로 본문을 읽으며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묵상하기, 읽기 후 활동으로 묵상내용과 과거경험, 미래적응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기 등으로 진행된다.

믿음의 여인들은 매일 성경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자유의 몸이 되고 싶은 꿈을 갖고 있으며, 영적양육을 통한 열매 맺는 삶을 살고자 힘쓰며 살아간다. 그래서 성경 속 믿음의 여인들의 위대한 삶을 들여다 보며 오늘날의 여성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재조명해 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다.

오늘 기도



2005. 5. 1
믿음으로 힘차게 전진하라!

수련회

교회학교 담당 교역자
전체 수련회 가져

지난 24일(주일)~25일 이틀간 교회학교 각 부서 담당 교역자들의 엠티가 있었다. 교육부를 이끌고 있는 홍민기 목사의 인도로 서정(영아부), 최인영(유아부), 김성민(유치부), 김수연(썩트네), 김진경(유년부), 김용철(초등부), 김종원(소년부), 우병선(레인보우), 이재욱(중등부), 유성훈(고등부) 전도사가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도로 오후 2시경에 떠났다. 일기가 불안정한 가운데 출발하여, 여행이 순조로울지 염려하였으나 안면도에 도착할 즈음부터 날씨가 개이고, 그 후 내내 쾌청하고 따뜻한 날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교역자들은 주일 저녁 7시경 롯데 캐슬에 도착하여,

여장을 풀고 해변가에 있는 횃집에서 식사를 했다. 식사 후 숙소로 돌아와 한 자리에 모여 그간 각 부서의 활동 보고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시간을 통해 교역자들은 부서들이 앞으로 서로 협력하며, 교육부 안에서 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전력하여 나가야 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서로를 격려하였다. 교육부 담당 홍민기 목사는 각 부서 담당 전도사들의 노고에 격려와 위로를 아끼지 않았으며, 또한 앞으로 교육부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를 지녀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 특별히 새롭게 시작된 학교 전도와 학부모/교사기도회가 날로 부흥하고 은혜가 넘침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날인 25일, 교역자들은 안면도 바닷가에 가서 드넓은 바다를 눈부시게 수놓은 찬란한 태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에 감격하며, 그 가운데서 즐겁게 교제하였다. 안면팔경에 속한다는 꽃지 해수욕장의 할미할아버위를 구경하며, 사진도 찍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오후에는 보트를 타고 세찬 물살을 가르며 안면도 바다 위를 질주하면서, 그간 쌓였던 무거웠던 짐들을 훌훌 털어버렸다. 점심 식사 후 교역자들은 안면송이라는 안면도 특유의 천연 소나무들이 유명한 안면도 자연휴양림으로 향했다. 울창한 소나무 숲을 지나며 맑고 시원한 공기를 마시고, 곳곳에 피어있는 봄꽃들을 보며 주님의교회 아이들의 미소를 떠올리기도 하였다. 산림욕을 마친 후, 교역자들은 다시 서울로 향했다. 돌아오는 길 동안도 내내 서로 설 새 없이 이야기하며, 웃으며 하나가 되는 시간을 가졌다. 주님의교회 교육부는 홍민기 목사의 인도 아래, 한 마음과 한 소망으로 다시한번 힘차게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다. 2005년 새롭게 시작한 교육부 12개부서는 모두 다음세대를 위하여 그들을 행복하게 하는 사역을 할 것이다. 앞으로 더욱 영혼을 구하고, 제자들을 양육하며, 훈련하는 데에 힘을 다할 것이다. 주님의교회 교우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성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연락처: 심미숙, 011-784-7604)

(1면에 이어서)

군부대에 울려 퍼진
복음과 찬양의 메아리 되어

예배후 3부 살롬 찬양대 이동훈 지휘자의 사회로 음악회가 진행되었다. '우리는 보았네'라는 합창곡으로 시작하여 소프라노 노은미 자매의 독창 '시편23편', 특별히 동참해준 천안대학교 기악학부 플룻 연주단의 연주가 이어졌다. 우리 가곡 '동무생각'과 '보리밭' 합창은 군인들을 잠시동안 고향 및 가족의 품으로 빠져들게 하였으며, 찬양 사역자 박종호가 불러 잘 알려진 '축복하노라'를 부른 홍근철 형제의 바리톤 독창 때는 남자 군인들의 차가운 반응을 우려했던 우리 모두가 놀랄 정도로 우리와 같은 박수를 받았다. 살롬 찬양대

내 청년대원 위주로 구성된 영살롬 중창단의 연주 때에는 모든 신병들이 일어서서 앙콜을 외쳤으나, 진행상 한 곡의 앙콜만으로 답할 수밖에 없었다. 훈련소에서 생일을 맞은 신병들을 위해 준비해간 간식 케익을 전달하고 생일 축하곡을 예배당에 있는 모든 이들과 함께 불러주는 순서를 가진 후, 살롬 찬양대는 마지막 곡으로 '거룩한 주'를 불렀다. 열화와 같은 앙콜이 터져 나와 '기뻐하리'와 '영원한 주'를 불렀으며, 모든 신병들이 퇴장할 때에는 사병들이 병영생활할 때 항상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비는 마음으로 '주와 함께 가리라'라는 찬양을 불렀다. 밤 11시반 경에 서울에 도착한 군부대사역팀과 살롬 찬양대원 모두는, 예배에 함께 했던 신병들 모두가 남은 23개월의 군생활 동안은 물론 제대후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피곤을 잊게 해 준 은혜 가운데, 월요일부터 다시 시작될 일상생활로 각자의 발걸음을 내디뎠다.



제4여선교회 월례회

제4여선교회 정기 월례회를 27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5층 찬양 연습실에서 가졌다. 회원들 서로 그동안의 근황을 물으며 반가운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정겨웠다. 담당 교역자인 김현령 목사는 렘 7:3~4절 본문으로 '모든 생활과 행실을 바르게 하라'는 설교를 전했다. 본문에서 "모든"이라는 말은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랑스러워하는 것 까지도 포함된다고 했다. 우리가 죄로 인식되는 것은 주님 앞에서 내려놓기 쉬우나, 스스로 잘했다고 느끼는 지적인 것, 이성적인 것, 나의 업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내려놓기 힘들고, 내려놓을 필요도 절실히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그것들이 나의 우상이 된다고 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려놓기 원하시는 것은 나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 역사를 쓰시기 위함이라고 했다. 더불어 하나님의 성전이란 외적으로 보이는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이고 내 몸이 성전이기에 때문에 내 마음 속에 우상을 내어 쫓고, 그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예배 후, 명화복지관으로 무의탁 가정을 위한 반찬 만들기 봉사를 갔다. 4여선교회에서는 5월 첫째, 셋째 수요일 회원들의 교제와 봄의 정취를 느끼려고 청계산 등산모임을 갖는다. 1955년~60년 사이의 모든 여

통합아동부,
달란트 결실 맺는 날

4월 24일 주일 통합아동부에서는 달란트 시장이 있었다. 그동안 아이들이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고 과제물을 성실히 이행한 것 등으로 달란트를 모은 것의 결실을 보는 날이었다. 또한 우리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믿지 않는 친구들을 초대하여 함께 한 천국잔치였다. 달란트시장에서 물건을 잔뜩 사는 것 보다는 천국 잔치로써 친구들과 함께 나누며,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실 하늘나라의 상급을 기대하는 풍성한 잔치가 되었다.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차이 없이 모두 달란트시장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었다.

소년부, 친구초청하여
축제예배 열어

하나님을 꿈과 믿음의 별이 되길 소망하는 주님의교회 소년부는 지난 4월 24일 소년부실에서 '153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친구초청잔치'를 열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진 베드로가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다는 요한복음 21장 11절을 토대로 하여, 상징적 의미로써 예배인원 153이라는 목표숫자를 세우고 함께 나아갔

다(현재 평균115명).

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홍보영상, 동기부여, 태신자 기도를 함으로써 예수님을 전하며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내적인 다짐과 준비를 하였다. 소년부 친구들은 마음속에 품고 있던 친구들에게 준비된 초대장을 줌으로 정식으로 교회에 초청했다. 행사 당일, 마라톤으로 인해 우려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초청받은 아이들(현재 교회에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22명을 비롯, 총 131명이 함께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축제의 예배를 드렸다. 예배 전, 공동체 게임을

시작으로 찬양과 소년부 율동, 재미난 캐릭터, 선생님들의 위십, 전도 사님의 설교, 그리고 기도로 마쳐졌다. 이번 '친구초청잔치'를 통해서 소년부 아이들은 교회에 친구들을 인도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무엇보다 진정한 친구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 그래서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고 함께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자라나기 위해, 소년부 친구들은 주위의 믿지 않는 친구들을 찾아 보고 있다. 그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말이다.

유년부 달란트학교

지난 주일, 11시50분부터 달란트 학교의 반 별 첫 수업이 시작되어

요리반은 김명애, 정영하, 정승아, 이미삼 선생님들의 지도로 식당에서 요리가 진행되었다. 이번 첫 시간에는 아이들이 '파래주먹밥'을 열심히 만든 후 신나는 시식시간을 가졌다. 특히 완성된 주먹밥이 교사회와 시간에 고구마와 함께 간식으로 곁들여져 교사들도 감사하게 시식을 해볼 수 있었다.

풍선아트반은

이혜선, 유경, 박기운(달란트학교장) 선생님과 함께 소예배실에서 만들기가 진행되었다. 풍선아트반에서 실습을 통해 만들어진 풍선들은 유년부 환경미화에 사용될 예정이다. 한 가지 미흡했던 것은 수작업으로 풍선 부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담당하신 선생님을 지원할 수 있는 보조교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연극반은 김미영, 임미정 선생님의 지도로 소예배실에서 연습을 했다. 첫날이어서인지 주로 '몸 풀기'를 했다. 연극반은 앞으로 '어린이성극'

에 참여할 수 있는 어린이를 지속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예쁜글씨반은

김봉걸(문화센터 강사), 심경화 선생님의 지도하에 소예배실에서 수업이 진행되었다. 기초 연습을 우선으로 하는 시간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예쁜글씨반의 작품들은 유년부의 환경미화 및 각종 유인물 제작에 사용할 것이다. 현재는 수업에 참가하는 어린이 수가 가장 적지만 소수 정예로 알차게 수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 같다.

영어성경반은

진승미(초등학교 영어교사), 성운경 선생님과 함께 유년부실에서 수업이 진행되었다. 아이들이 재미있게 영어성경을 접할 수 있도록 노트북과 비디오프로젝터

를 이용한 멀티미디어 학습으로 강의가 이루어졌다. 어린이들이 영어도 배우고, 성경공부도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강의였다.

종이접기반은

최운정(초등학교 교사), 박선화(유년부부장집사) 선생님의 지도로 소예배실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시간에는 장미 한 송이를 만들었다. 종이접기반의 만들기작품들도 유년부실의 환경꾸미기소품으로 쓰일 것이다.

놀이반에서는

아이들이 정은수, 한기호, 강현희 선생님의 지도로 운동장에서 피구 게임을 했다. 활동력이 왕성한 어린이들의 운동과 체력관리를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유아부

야외예배 지난주 가져



지난주 유아부에서는 봄을 맞이하여 야외예배를 드렸다. 날씨도 너무도 화창하고 따뜻해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한번 느꼈다. 나무아래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예배를 드리니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 울동도 찬양도

더 열심히 드렸다. 이어서 벌어진 떡볶이 파티에 아이들은 "더주세요"를 연발하며 그 작은 입으로 떡이며 오뎅을 맛있게 먹었다. 다음은 선생님들의 파티! 고추장을 듬뿍 풀어 맵게 만들어 호호불며 먹는 떡볶이 맛은 그야말로 최고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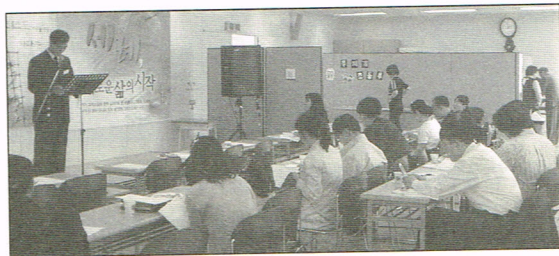
유아부 아름다운 꽃장식

올해 바빠서 꽃구경을 제대로 못하신 성도들은 유아부실을 방문하면 매우 좋다. 창문 사이 사이에 있는 작은 벽들을 아름다운 꽃으로 예쁘게 장식했다.



각양각색의 이름 모를 꽃들이 만발한 유아부에 가서 사진도 찍고 어린이들이지만 그들이 만든 예쁜 꽃구경도 하면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다.

유아세례식, 5월 4일 수요일에 열려



유아세례교육이 4월 10일부터 오늘까지 총 4주에 걸쳐 있었다. 오늘은 문답식을 갖는다. 그 동안 정희성 목사와 세례사역팀 그리고 영아부 교사들의 헌신적인 섬김으로 유아세례교육이 매주일 오후 1시 45분, 3층 초등부실에서 한 달동안 열렸다. 그 동안 유아세례교육은 비록 만 2세 이하의 유아가 받는 세례이지만, 유아의 부모를 위한 교육이었으며

부모에게 매주 정해진 과제를 부과하며 하나님 안에서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는 여러가지 성경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에 관해 강의되었다.

세례교육 5월 8일부터 시작

세례교육이 5월 8일부터 시작되어 5주간 진행되게 된다. 1층 로비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세례예식은 6월 15일에 있게 된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5주 동안 세례/입교 예식 교육을 받거나 5주 새가족 성경공부에 참가한 후 문답예식을 거쳐야 한다.

세례예식은 주로 수요성경공부 시간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데 세례예식이 다소 길어지는 관계로 이후 계속되는 구역장 성경공부와 같은 후속 프로그램에 지장이 있어 세례예식을 주일 오후와 같은 시간으로 옮기는 것을 검토했지만, 주일 오후에도 여러가지 프로그램과 사역들이 많아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그래서 일단 이번 세례예식까지는 수요성경공부 시간에 그대로 하고, 2학기부터는 좀더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나은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세례예식은 예수님께서 잃은 양을 찾으신 후 배설한 기쁨의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보는 것 같은 감동적인 순간이다. 교회의 모든 성도가 이 예식에 관심을 갖고 기도해주는 것을 당부한다.



지난 세례예식 장면

초등부, 교사 야유회

하나님께서선 우리나라에 다른 나라가 갖지 못한 큰 축복을 주셨다. 그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뚜렷한 사계절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4월 봄날의 따뜻한 햇볕과 화사한 산들의 꽃과 나무를 주셨고 초등부 교사들에게는 특별히 덤으로 '교사 야유회'도 주셨다.

지난 24일 토요일, 초등부 교사들은 "미술관위 수련장" 서울대공원 청소년 수련장에서 야유회를 가졌다. 매주 주일 오전 2부예배를 마치고 숨가쁘게 초등부실로 달려와 어린이들을 맞고 같이 예배를 드린 후 곧장 다시 각자 소속된 부서와 모임으로 달려가

게 되어 여유롭게 교제를 나눌 겨를이 없었던 교사들이 자연 속에서 은혜로운 모임을 가졌다.

하지만 모임은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되 고난도 함께 주셔서일까? 주말 유원지가 다 그렇듯 PTP모임을 마치고 오는 교사는 교통 정체에 간혀 한 시간 이상 고생했고,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 2시간이나 일찍 약속 장소에 나와서 기다리던 교사는 3시간이 훌쩍 넘는 기다림에 지치고, 장소 변경이라는 극한 상황도 극복하며 우여곡절 끝에 약속 장소에 다 모였다는 기쁨도 잠시 일행 중 어린이 하나가 없어서 애타게 찾다가 겨우 찾는 사고도 있었다. 하지만 모든 일은 마무리가 좋으면 다 좋아 보이고 그간의 어려움도 더 멋져 보이는 법. 당초 예정보다 2시간이나 더 지나서 앉은 식탁 자리

는 그야말로 감동의 도가니였다. 물론 식사 시간에도 준비한 세 개의 가스 버너 중 2개가 고장 나는 작은, 아주 작은 사건도 있었지만, 노릇노릇 구운 삼겹살을 맛있는 찜장에 찍어 풍성한 야채에 씹을 씹어 먹는 그 담백한 맛, 시큼한 김치의 그 깊은 맛, 고기 먹는 사이사이에 입에 들어가는 건강 만점의 잡곡밥, 그리고 식사 후에도 나온 4월의 수박,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할 만 했다. 무엇보다 감동은 그 준비한 손길의 풍성함이었다. 하염없이 먹었으나 끝이 없이 공급되었다. 그야말로 모두들 배불리 먹고도 열 두 광주리 가득히 남은 오병이어 기적의 동산 같이 풍성한 식탁이었다. 비록 다소 어렵게 시작한 모임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시고 결국엔 우리가 풍성히 누리게 하셨다.